

中共의 外交政策과 그 形成要因

—특히 國內的 要因을 중심으로—

崔 明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 次>

- | | |
|-------------------|---------------|
| I. 序 論 | IV. 軍 部 |
| II. 政策·世界觀·戰略 | V. 外交政策의 管理機構 |
| III. 政治·社會·經濟的 構造 | VI. 結 論 |

I. 序 論

1960年代 말부터 國際政治의 力學關係가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변화해 왔다. 中共과 蘇聯사이의 憼烈한 軍事的 對決과 특히 아시아에서의 兩國사이의 競爭, 北京과 워싱톤사이의 關係正常化, 및 日本과 中共사이의 關係正常化는 아시아에 있어서 強大國사이의 힘의 關係의 기본적 樣相을 급격하게 变질시켜 왔던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년 사이에 美國은 印度支那半島에서 과거의 막강하던 영향력을 거의 철수시켰을 뿐 아니라 韓半島와 같은 아시아의 다른 地域에 있어서도 軍事力의 存在를 감소시켜왔다. 한편 蘇聯은 이들 地域에 있어서 外交·經濟·軍事(특히 海軍)의 各方面에 있어서 그 活動을 增大시켜 왔고, 日本 역시 그 經濟力의 張창에 의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해 온 것이다. 그러나 東아시아의 國際秩序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變化는 中共의 外交政策과 그 國際關係의 變化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變化의 結果는 東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四強體制”的 등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韓國과 같이 작은 國家는 심든 좋든 간에 새로운 國際秩序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소위 “四強”的 政策이 모두 東아시아의 새로운 國際秩序를 형성시키는데 기여했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지만, 특히 中共의 外交政策戰略의 變化

2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一卷 第二號

가 이 地域에서 國際均衡의 本質을 变形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役割을 담당했던 것이다. 中共外交戰略의 變化는 대부분 過去 政策의 극적인 顛倒이며, 그 顛倒의 급격성이라 할지 또는 그豫測不可能性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變化는 北京의 外交政策의 基底를 이루고 있는 基本的인 動機와 目標에 관하여 여러가지 疑問을 제기하고 있다.

언제 그리고 왜 中共의 指導者들이 새로운 外交政策戰略을 급격하게 채택하기로 決定하였는가? 北京의 새로운 政策—例컨대 美國과의 國交正常化—은 한동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變化할 것인가? 그렇다면 繼續性과 變化的 變數들은 무엇인가? 지난 10년 사이에 경험한 中共의 外交政策變化로부터 그들 外交에 特유한 優先的 要素나 目標를 추출하여 낼 수 있을 것인가?¹⁾

이와 같은 疑問들이 우리의 關心事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에 앞서서 우리는 中共指導者들이 그들의 外交政策을 樹立하고 執行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要素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分析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中共의 對外政策을 연구하는 學者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外交政策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複雜한 複雜한 要素들이 하나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어느 나라의 外交政策과 마찬가지로 中共의 外交政策도 여러가지 要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예컨대, 이데올로기와 뿌리를 박은 信念이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觀 내지는 戰略的 處方, 특히 長期的인 目標에 대한 處方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歷史로부터 유래된 文化的 態度와 民族主義的 感情도 中共의 指導者들의 思考方式에 큰 영향을 주어 왔다. 또 中共外交政策의 대부분은 지극히 現실적이며 實用主義의이며, 따라서 급박하고 제한적인 國家利益을 추구하는 동시에 國際的 影響力を 向上시키는 方向으로 움직여 왔다. 물론, 그 가운데는 北京의 指導者들이 創意的으로 만들어 낸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反動的인 一즉, 外的 環境의 變化에 反應하는 政策이었다. 中共의 指導者들도 世界 어느 國家의 指導者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國際環境으로부터 그들에게 가해지는 外的 壓力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國內政

1) 이러한 疑問은 A. Doak Barnett가 *China and Major Powers in East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7)에서 제기한 것이다.

治와 社會經濟的 與件 및 軍事力도 구체적인 政策形成에 영향을 준다. 더구나 中共에 있어서는 發展의 目標에 대한 指導者들의 見解의 變化도 중요한 要素로 作用해 왔던 것이다²⁾.

그리하여 中共의 外交政策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特定한 政策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의 要素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現實이 複雜한 이상 그 複雜性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論文에서 筆者は 中共의 外交政策形成에 영향을 주는 광범한 要素들을 分析하고자 한다. 물론 具體的인 政策에 영향을 미치는 要素 가운데는 보다 重要하게, 보다 決定的으로, 혹은 보다 優先的으로 作用한 것도 있을 것이며, 대체적으로 北京의 外交政策戰略에는 광범한 地政學의 脈略에서 軍事・安保的인 要素가 가장 중요하게 作用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本論文에서는 外交政策 形成에 영향을 주는 要素는 그것이 國內的인 것 이든, 國際環境上의 것이든 모두 취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要素들이 전부 지난 10여년 동안의 中共外交의 變化를 說明하고, 未來의 行爲를 預測하는 일반적인 틀을 형성한다고 筆者は 믿기 때문이다.

II. 政策・世界觀・戰略

外交政策은 어느 社會를 따른하고, 그 支配 엘리트가 그들의 政治體制가 갖는 기본적 가치와 外部의 狀況環境으로부터 얻는 情報 一혹은 資料一를

2) 中共政權의 樹立以後 그 外交에 관한 일반적인 分析을 시도한 대표적인 研究로는 Harold C. Hinton, *Communist China in World Politics* (New York: Houghton Mifflin, 1966)와 *China's Turbulent Quest: An Analysis of China's Foreign Policy Since 1949* (New and enlarged ed.; New York: Macmillan, 1972); J.D. Simmonds, *China's World: The Foreign Policy of a Developing St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Peter Van Ness,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Peking's Support for Wars of National Libera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Vidya Prakash Dutt, *China's Foreign Policy, 1958~1962* (Bombay: Asia Publishing House, 1964); R.G. Boyd, *Communist China's Foreign Policy* (New York: Praeger, 1962); A. Doak Barnett, *Communist China and Asia: Challenge to American Policy* (New York: Vintage Books, 1960); Wang Gungwu,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9: The Impact of Independence, Modernity and Revolu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7); Ishwer C. Ojha, *Chinese Foreign Policy in an Age of Transition: The Diplomacy of Cultural Despair* (Boston: Beacon Press, 1971) 등을 들 수 있다.

3) 이것이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의 基本假定이다.

결합시키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어떤 具體的인 政策이 왜 채택되었는가 하는 問題에 대한 解答은 결국 엘리트, 즉 指導者가 그들 自身의 役割과 狀況・環境的 脈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왜나하면, 外交政策의 決定과 執行은 指導者들의 認識에 의하여 크게 左右되기 때문이다. “엘리트의 行爲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世界를 어떻게 보는 것이며, 실제로의 世界는 아닌 것이다⁴⁾”。 따라서 外交政策과 그 執行을 左右하는 것은 반드시 外部的 狀況과 環境의 客觀的 要素가 아닌 것이며, 그 客觀的 要素에 대한 指導者들의 主觀的 認識 —즉, 世界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인 것이다.

이와 같은 假定은 中共의 指導者에게도 물론 적용된다. 中共의 指導者들은 外交에 대한 그들의 行爲를支配하는 原則에는 모순이 없고, 또한 一貫性이 있어왔다고 主張한다. 만약 그 行爲에 어떤 變化가 있었다면, 그것은 他國의 政策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다⁵⁾. 예컨대, 그들은 中共의 外交政策이 세個의 水準에서 운영된다고 主張한다. 첫째는 최대의 國際的 摧取者이고 抑壓者인 美國과 蘇聯의 두 羣權大國과의 關係이며, 둘째는 帝國主義, 植民地主義, 羣權主義와 爭쟁하는 第3世界와의 關係이며, 세째는 二重의 性格의 第2世界와의 關係라는 것이다⁶⁾. 따라서 中共은 이와 같은 세個의 水準에서의 外交政策이 각기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세個의 世界論의 內容도 1950년대와 비교하여 큰 變化를 겪었는데, 한동안 同盟勢力으로 간주하던 蘇聯을 羣權大國으로 인식하게 된것은 그 變化的 例라고 할 수 있다.

中共指導者들이 그들의 外交政策을 어떻게 評價하고 있든지간에, 中共外交政策을 分析하는 입장에서 보면 政策의 變化는 그 自體로서는 흥미로우나 그 變化的 背景이 반드시 明瞭한 것은 아니라는 點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中共指導者들이 그들의 外交關係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政策의 轉換點에서 世界情勢를 어떻게 분석하고, 中共

4) Kenneth E. Boulding,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 No. 2 (June, 1959) pp. 120-131.

5) Michael B. Yahuda, "Chinese Conceptions of Their Role in the World," *The Political Quarterly*, Vol. 45, No. 1 (January-March, 1974), p. 75 참조.

6) 예컨대, 中國共產黨 第11全大會에서 행한 華國鋒의 “政治報告”, 每日新聞, 1977年 8月 23日 4面 참조.

이 담당하는 國際的 役割에 대한 認識을 고찰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1. 國際的 役割의 變化

中共은 수천년의 文化的・政治的 傳統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意味에서 “新生國”的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中共은 現代의 國際體制속에서 그 領土의 크기나 人口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왔다. 19세기 中葉 阿片戰爭 이후, 西歐의 帝國主義 势力에 의하여 半殖民地狀態로 전락하기까지, 中國은 거의 近代國際體制속에서 孤立되었고, 中國文明圈밖의 國家와는 가능한限 그 接觸을 회피하여 왔다. 文化的 優越性에 깊이 뿌리를 갖고 있던 中華思想의 傳統은 中國人으로 하여금 外部의 影響力を 그들의 存立에 대한 威脅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다⁷⁾.

그러나 西歐列強에 비하여 技術이 낙후되고, 軍事力이 취약했던 中國은 阿片전쟁 이후 점차로 증대되어온 外勢의 侵略을 저지하지 못하고, 屈辱에 屈辱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1911년 傳統的인 王朝, 中國의 帝國은 멸망하고 말았다.

辛亥革命 이후 共和政이 실패하고, 軍閥에 의하여 나라가 三分五裂되던 時代에도 中國의 指導者들은 中國이 근대 國際體制의 一員으로 활약하기를 희망했고, 또 그 속에서 中國의 “正當한地位”를 찾으려고 努力했던 것이다. 國民黨이나 共產黨이나 모두 한편으로는 中國社會를 革命化하고 강력한 近代國家를 창설하려는 오랜 투쟁속에서도, 다른 한편은 國際社會속에서 中國의 役割을 정립시키려고 끊임없는 試圖를 계속했다. 말하자면, 20世紀에 開化된 中國의 엘리트라면 누구나 中國이 強大國의 地位를 획득하여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⁸⁾.

2次大戰 당시 日本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수 없었던 中國은 소위 “四強”的 하나로서 認定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形式的인 의미에 불과했다. 당시 中國大陸을 지배하던 國民黨政權은 사실상 다른 列强과 겨룰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따라서 強大國의 地位를 주장할 能力도 없었다.

7) Cf.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Edwin O. Reischauer and John K. Fairbank,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60), pp. 183 ff.

8) 예컨대 蔣中正著, 中國之命運(中央文物供應處印行, 1967, 初刊은 1940) 참조.

6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一卷 第二號

內亂과 革命, 外勢(주로 日本)의 侵略에 시달려온 國民黨政權은 이름만의 2次大戰의 戰勝國이었던 것이다.

1949년 共產主義者들이 執行하면서, 狀況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中國大陸을 統一하고 강력한 國家機構의 政權을 수립하면서, 蘇聯과의 同盟關係를 이용하여 軍事力を 증강시키고 經濟發展을 폐하며, 國際舞台에서 보다 적극적인 役割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어떤 意味에서 中國의 強大國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共產主義政權의 등장과 더불어였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하여 國際社會에서의 中共의 役割은 상당히 制限的이었다. 中共이 韓國動亂에 참전함으로써 격화된 美國과의 對立은 결국 後者の 對中共封鎖政策을 낳게 했고, 그 결과 美國은 오랫동안 中共이 國際社會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蘇聯과의 同盟關係속에서도 그 劣等的地位라든가, 大躍進政策과 文化革命등의 복잡한 國內政治는 사실상 强大國으로서의 役割을 십분 수행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1960년대 말까지 “中華人民共和國”은 유엔을 위시한 대부분의 國際組織에서 그 參與가 제한되었고, 많은 나라 (적어도 過半數이상의 國家)에 의하여 承認조차 못 받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東아시아에서 決定的인 役割을 담당하던 强大國과는 蘇聯을 제외하고는 公式的인 關係를 전혀 수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國際社會에로의 中共의 進出을 지연시킨 要因으로는 1960년대 後半에 발생했던 文化革命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文化革命期間중, 中共은 극도의 孤立主義를 견지하여 1966년 말부터 각국에 파견되었던 外交官(大使를 포함)들을 本國으로 召喚하였다. 그들은 外部世界와의 接觸에 의하여 부패되었다고 批判을 받고, 毛澤東思想에 의한 再教育이 必要하다고 主張되었다. 에집트 駐在大使를 제외하고 모든 海外駐在大使들이 소환되고, 그大使職은 1969년까지 空席으로 남아 있었는데, 文化革命이 종식됨과 더불어 中共指導者들은 다시 外部world로 그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1971년 이후, 中共의 外交政策, 國際的 地位 및 國際社會에서의 役割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⁹⁾. 물론 그 變化의 裡面에는 여러가지 要素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 中共指導者들이 政治的,

9) Cf. Wang,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9*, pp. 106-130; Hinton, *China's Turbulent Quest*, pp. 127-162.

經濟的, 내지는 戰略的 理由에서 그들의 位置를 재평가하여 中共의 기본적인 外交政策戰略을 다시 定立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中國의 國內의 必要와 國際現實을 分析하고, 점차로 보다 적극적인 姿勢로 國際舞台에 진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中共의 國際舞台로의 進出에는 美國과 日本등의 對中共政策變化도 중요한 작용을 미쳤던 것이다. 아울든, 中共의 國際間의 接觸과 活動은 1971년 이후에 크게 신장되었고, 이제 中共은 強大國에게 기대되는 國際的인 役割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이후, 中共은 거의 모든 주요 國家와 國交를 수립하는데 성공했으며, 1975년에 이미 中共은 100餘個의 國家와 國交를 맺게 되었는데, 그것은 1968년 현재 國交關係를 맺었던 數의 倍가 훨씬 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國交正常化가 지연되던 美國과의 關係도 1979년을 기하여 正常化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第3世界와의 關係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던 것이다¹⁰⁾. 그러나 中共의 國際舞台에서 役割의 伸張은 1971년 中華民國을 축출하고, 유엔에 加入함과 동시에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무엇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 中國은 이제 國際社會에서 孤立兒가 아니라, 유엔 兩中의 거의 모든 機構의 成員으로서 중요한 國際的 이유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 同一한 時期에 있어서 對外貿易을 포함한 中共의 對外經濟關係도 점진적으로 증대되었던 것이다. 물론, 中共의 外國貿易量은 특히 그 人口에 비하면 소규모의 것이지만, 오늘날 中共은 農業生產品, 資本財 및 先進技術의 중요한 輸入國이며, 石油 및 기타 商品의 중요한 輸入國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中共의 國際的인 役割의 變化는 軍事大國의 면모를 갖게된 것과 또 큰 關係를 갖는다. 물론 中共의 軍事力은 美國이나 蘇聯의 그것에 비하여 아직 弊勢하며, 아직도 地域의in 力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기본적으로 防衛的 態勢에 主力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中共이 核能力을 보유하게 된 이후, 核均衡에 있어서 새로운 要素로 등장하였고, 특히 유엔에 있어서 軍縮問題에 깊이 관여하게 된것은, 美國과 蘇聯과 더불어 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國際的 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10) 예컨데 Cf. George T. Yu, "China and the Third World", *Asian Survey*, Vol. XVII, No. 11 (November, 1977), pp. 1036-1048.

는 위에서 中共의 軍事的 姿勢가 기본적으로 防衛的 能力에 主力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글을 쓰는 동안 中共이 越南을 전면적으로 侵攻하는 事態가 발생했다. 中共의 越南侵攻에 관하여는 후에 다시 分析할 기회가 있겠으나, 아무튼 그 行爲는 中共의 軍事戰略이 防衛的으로만은 볼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中共의 越南侵攻은 韓國動亂에 參戰한 이후 최대 규모의 軍事的 行爲였고, 비록 領土에 대한 野欲이 없이 目的을 達成하면 撤軍한다고 하면서 越南에 대한 일종의 “應徵的 侵略”을 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越南이 통일된 후, 東南아시아에 있어서 蘇聯과 中共과의 勢力競爭이 특히 캄보디아에 대한 越南의 介入을 둘러싸고 폭발한 것이지만, 그것이 화이팅教授가 지적하는 中共의 軍事行爲에 있어서 軍事力의 “統制的 使用(controlled use of force)”의 범위를 넘어서 것으로 볼수 있을지 모른다¹¹⁾. 中共의 越南侵攻은 과거의 경험에서와 같이 軍事力의 使用이 領土의 安全과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威脅이 없는 狀況에서 軍事力を 사용한 최초의 행위인 것이며, 이 點에서 볼때 中共이 防衛的이건 侵略의건 간에 중요한 軍事大國으로 등장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

그러나 中共의 國際的 地位가 全面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볼수는 없다. 中共은 주요 強大國 가운데서 아직도 가난한 나라이며, 그 經濟力은 美國, 蘇聯, 日本, 혹은 歐洲共同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다. 軍事大國이라고 위에서 지적은 했지만, 그 軍事力도 2級에 지나지 않고, 美國과 蘇聯의 소위 “超强大國”的 水準에 도달할 전망은 거의 없는 것이다. 더구나 國際社會에의 參與가 증대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것이며, 相互依存의 特징적인 現代 國際關係속에서 다른 주요 列強에 비교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共이 國際社會에 점증적으로 진출한 것의 의미는 深長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또 그 國際的 영향력은 계속 증대될 것이 틀림없다. 中共의 指導者들은 대단히 野心的인 國家目標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른 大國의 指導者와 마찬가지로, 中共의 指導者들도 國力を 伸張시키고, 國際社會에서 그 影響力を 확대하고, 經濟的 繁榮의 성취를 목표로 삼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國家의 가장 기본적인 關心은 정치적 내지는 物

11) Allen S. Whiting, *The Chinese Calculus of Deterrence: India and Indochin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5) 참조.

理的인 生存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최소의 安保水準을 유지하려는 目標를 갖는다. 더구나 中國과 같이 巨大하나, 先進工業國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에는 安保의 維持가 큰 問題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生存의 기본적인 問題로서 安保는 다른 모든 目標에 優先的 地位를 지녀왔다. 中共指導者들은 19세기 中葉이후 列強에 의하여 강요되었던 “半殖民地” 狀態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고, 中華思想이라는 傳統에서 유래되는 眇持도 갖고 있다. 따라서 國家에 대한 眇持가 그들의 外交行爲의 많은 侧面을 설명한다¹²⁾. 그들은 中共의 國際的 地位와 權利에 대하여 극도로 민감하고, 國際法上의 主權과 法的 平等에 대하여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이다¹³⁾. 그러면서도 中共指導者들은 거의 모든 중요한 國際的 이슈에 있어서, 또 중요한 地域에 있어서 影響力を 행사하려고 努力해 왔다.

앞에서도 잠시 言及한 바가 있지만, 中共外交政策의 대부분은 制限的이고 具體的인 國家利益을 어떻게 追求할 것인가에 대한 指導者들의 現實的 評價에 그 基礎를 두고 있다. 그들은 중요한 國際的 이슈에 있어서 中共의 立場에 대한 政治的 支持를 최대한으로 획득하고 近代化의 成就를 위한 經濟的 關係를 向上시키고, 그 安保에 직결되는 勢力均衡의 維持에 腹心해 왔던 것이다. 中共外交政策에 있어서 理念的인 要素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政策의 대부분은 實用主義的인 現實政治의 產物이며, 中共의 外交政策도 다른 大國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리나 中共의 外交政策에는 다른 強大國과 현저하게 다른 독특한 要素도 많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적어도 세가지 要素를 지적할 수 있는데, 中國의

12) 예컨대 中共 副首相 鄧小平이 中共의 越南侵攻의 理由를 밝히면서 『중공은 동양의 쿠바가 우쭐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수 만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國家의 威信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表明했던 것이다. 朝鮮日報, 1979年 2月 28日.

13) 中共外交政策과 연관된 法的 侧面에 관한 研究는 Jerome Alan Cohen and Hungdah Chiu (eds.), *People's China and International Law: A Documentary Study*, 2 v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James C. Hsiung, *Law and Policy in China's Foreign Relations: A Study of Attitudes an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Leng Shao-chuan and Chiu Hungdah (eds.), *Law in Chinese Foreign Policy: Communist China* (Dobbs Ferry: Oceana Publications, 1972) 및 Suzanne Ogden, "China and International Law: Implications for Foreign Policy," *Pacific Affairs*, Vol. 49, No. 1 (Spring, 1976), pp. 28-48.

14)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pp. 5-6.

傳統, 近代民族主義 및 革命에 대한 热望이 그것이다. 이에 관하여 바넷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¹⁵⁾. 아마도 傳統은 中共의 指導者로 하여금 中國의 偉大性을 믿게 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國際社會에 있어서 마땅히 指導的 役割을 수행해야 한다고 確信시켰을 것이 분명하다. 中國의 過去의 支配者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中共의 指導者들도 다른 나라에 依存함이 없이도 그들의 基本的 目標를 성취할 수 있는 能力を 갖고 있다고 믿어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中國의 價值와 妥協해야 될지도 모르는 外部의 壓力이나 干涉을 두려워하여 왔고, 中國의 모델이 다른 많은 國家에 모범이 되리라는 信念을 갖고 있는 것이다.

近代 民族主義는 많은 나라에 있어서 강력한 民族國家의 建設에 動因이 되고 있지만, 특히 半植民地의 狀態를 오래 경험한 中國의 경우에는 完全獨立을 보장하고, 主權에 대한 일체의 干涉을 排除하는 政策을 추진케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中國內에 있어서 西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努力으로 나타났고, 각종 形態의 帝國主義와 植民主義에 對抗하는 政策을 낳게 했다¹⁶⁾. 中共의 指導者들은 100여년에 걸친 西歐列強(日本을 포함)에 의한 侵略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와 革命에 대한 热望도 中共外交政策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49년 共產主義者들이 政權을樹立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國은 거의 革命의 第一世代에 의하여 支配되어 왔으며, 그들은 革命的 變化가 中國大陸에서 뿐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전파되기를 希望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 固有의 “마르크스主義의・레닌主義의・毛澤東主義의”用語를 구사하면서, 非共產國家의 指導者는 물론 다른 共產主義 國家의 指導者와는 전혀 다른 視角에서 國際問題를 보아 온 것이다. 그리하여 이데올로기는 中共指導者들이 國家간의 相互關係를 分析하는 方式뿐 아니라 國際情勢를 기술하는 用語에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둔 中共指導者들의 價值는 그들과 同調하는 國外의 革命政黨이나 革命運動에 대한 道德的 支援내지는 物質的 援助를 可能하게 했던 것이다. 中共外交政策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점차로 弱化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15) *Ibid.*, pp. 6-7.

16) 오늘날 中共은 帝國主義와 植民主義를 아주 광범하게 定義하여, 소위 強大國이 弱小國에 대하여 행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영향력을 포함시킨다.

그 중요성을 결코 無視할수는 없을 것이다¹⁷⁾. 오늘날 中共의 外交政策이 다른 强大國의 그것과 크게 区別되는 것은 그 革命的 目標에 부여하는 指導者들의 價值에서이며, 그때문에 中共은 國際政治의 現存秩序를 강력히 反對하고, 世界秩序의 體系的 變化를 강력히 主張해 온 것이다. 예컨대 毛澤東의 유명한 句節을 引用할 것도 없이, 中共의 指導者들은 오늘날의 世界가 “天下大亂의 世界”라고 보고 있으며, 國際秩序의 不安定을 강조하면서, 天下大亂의 不安定이 새로운 世界秩序의 徵兆라고 主張한다.

물론 特定한 外交政策의 樹立이나 決定에 있어서, 傳統, 民族主義, 이데올로기, 實用主義, 또는 現實政治上의 考慮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作用하느냐 하는 것을 밝히기는 不可能하다. 이들 要素의 相對的 重要性은 時期에 따라, 이슈에 따라, 環境에 따라 크게 變化해 왔다. 때로는 이들 要素가 相互補強의in 役割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또 때로는 相互 矛盾을 야기하면서, 政策選擇에 있어서 難問題를 대두시켜 왔음도 사실이다.

2. 그 世界觀과 戰略

中共의 外交政策은 態度, 價值, 利益, 또는 目標등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형성되고, 운영되지만, 中共指導者들은 항상 그들의 政策을 어떤 一貫性 있는 世界觀을 통하여 說明하고 正當化하려고 努力해 왔다. 물론 그들의 世界觀이나 具體的인 政策이 靜態的 概念은 아니며, 世界情勢를 分析하는 패턴도, 또한 기본적인 外交政策戰略도 國際環境의 變化에 따라서 修正되어 왔던 것이다.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觀에는 地域的 모델(spatial model)에 근거한 傳統的인 世界秩序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側面도 중요하다¹⁸⁾. 그러나 이것보다

17) 예컨대 Scalapino 教授는 近者에 와서 中共外交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그리 강조하지 않는다. 『共產主義 國家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것이 최근의 流行이다. 어느 의미에서, 그것은 正當視된다. 中共〔外交〕政策의 대부분도 蘇聯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체로 國家利益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導出되고, 마르크스主義의 信條와 矛盾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中共이 아무리 國益위주의 實用主義 政策을 평나간다고 해도 이데올로기의 要素가 완전히 排除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Cf. Robert A. Scalapino, "China and the Balance of Power," *Foreign Affairs*, Vol. 52, No. 2 (January, 1974), p. 352.

18) 예컨대, 崔明, 現代中國의 政治(서울 法文社, 1974), 第8章 “中共의 世界秩序觀” 참조. 또한 Norton Ginsburg, “On the Chinese Perception of a World Order”, in Tang Tsou (ed.), *China in Crisis*, Vol. II: *China's Policies in*

더욱 중요한 것은 “科學的 社會主義”(scientific socialism)의 신봉자로서, 그들이 歷史發展의 广泛한 諸勢力を 누구보다 잘 理解하고 그것에 누구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는 것에서 도출된다.¹⁹⁾ 그리하여 그들은 주기적으로 歷史的 時期에 대한 새로운 定義를 내리면서, 그 歷史의 變化勢力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時期에 알맞는 특정한 戰略이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그러므로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觀에 관한 考察은 특정한 時期와 分離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文化革命이 형식적으로 종식된 1969년의 九全大會이후 中共指導者들의 世界情勢에 대한 認識을 주로 분석하고자 하나, 이에 앞서서 그 이전의 世界觀의 趨勢를 간단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20).}

가. 九全大會이전

2次大戰 당시 中國의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戰爭의 性格이 이데올로기上의 路線을 넘어서 “聯合的”이어야 한다는 必要性을 인식하고 파시스트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共產主義者와 非共產主義者들과의 广泛한 聯合戰線을 형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毛澤東의 기본적인 戰略은 “政策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一目瞭然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특히 抗日戰爭과 관련하여 中國共產黨의 立場을 밝힌 것이었다^{21).}

여기에서의 接近은 소위 聯合戰線 概念에 입각한 독특한 势力均衡의 戰略이다. 毛澤東에 의하면, 中國共產黨은 “革命的인 二元政策(revolutionary dual policy)”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中國共產黨은 여러 종류의 敵과 同盟勢力を 엄격하게 선별하되, 聯合戰線政策은 마땅히 “同盟만 추구하고 戰爭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며, 戰爭만 추구하고 同盟을 기피하

Asia and America's Alterna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8), pp. 73-91; Theodore Herman, “Group Values Toward the National Space: The Case of China”, *Geographical Review* (April. 1959), pp. 164-182;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etc.

19)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pp. 6-7.

20) 以下의 分析은 *Ibid.*, pp. 8-10에 주로 의존함.

21) “政策에 관하여 (On Policy)”의 全文은 Mao Tse-Tung,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54), Vol. 3, pp. 215-224. 이것은 1940년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의 黨內 指示文으로 발표되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닉슨 美大統領의 中共訪問 직전인 1971년에 上記 毛澤東의 指示가 다시 出版되었다는 事實이다. 여기에 관하여는 A. Doak Barnett, “Peking and the Asian Power Balance,” *Problems of Communism*, Vol. XXV (July-August, 1976), pp. 42-43. 또한 Barnett의 上記論文은 George T. Yu (ed.), *Intra-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7)에 “China and the Balance of Power in Asia”란 제목으로도 수록되어 있다.

는 것이 아니라, 同盟과 戰爭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다²²⁾.

革命的 二元政策은 필요에 따라서 敵과 同志의 區別에 伸縮性을 부여하는 中國共產黨의 戰術로서, 聯合戰線에 있어서 모든 同盟勢力의 二重的 性格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中國共產主義者들이 1949년에 그들의 政權을 수립하자, 共產主義者와 非共產主義勢力사이의 基本적인 兩分性을 강조하면서, 蘇聯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革命勢力의 社會主義 陣營”과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反動勢力의 帝國主義 陣營” 사이의 革命的 戰爭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²³⁾. 그러다가 1950년대에 와서, 中共指導者들은 世界의 複雜性을 다시 인식하고 새로운 聯合戰線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社會主義 陣營과 帝國主義 陣營사이의 基本의 戰爭을 표면에 내세우면서도, 中立勢力 및 기타의 反帝・非共產勢力を 잠재적인 同盟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1950년대 中期의 特징으로 볼 수 있는 소위 “반동精神”(Bandung spirit)은 平和共存을 표방한 새로운 聯合戰線의 모색이었던 것이다²⁴⁾. 그러나 “반동精神”은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1950년대 末에 와서 社會主義와 帝國主義의 戰爭에 있어서 革命的 好戰性을 재삼 강조하게 되었다²⁵⁾. 다만 이 시기에 있어서도 中共은 新生의 非共產主義國家들에게 支持를 얻으려 노력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世界情勢가 점차로 복잡해지자, 中共指導者들은 진정한 마르크스・레닌主義革命勢力一派하자면, 中國과 이에 同調하는 势力一은 帝國主義라는 일차적인 敵은 물론 共產陣營內의 위험스러운 “修正主義의 傾向”(revisionist trends)과 戰爭할 것을 宣言하고 나섰다. 그들은 점차로 소위 第三世界에 속하는 國家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르크스主義革命勢力과 더불어 각종의 독립 또는 解放運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中共指導者들은 帝國主義의 總本山인 美國과 “第二中間地域”(second

22) Mao, *Selected Works*, Vol. 2, p. 216.

23) Wang,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9*, Chap. 2; John Gittings, *The World and China 1922-1972*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Chaps. 7-8.

24) 반동時期의 中共外交政策에 관하여는 Hinton, *China's Turbulent Quest*, pp. 55-77; Barnett, *Communist China and Asia*, pp. 292-293. Wang,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9*, pp. 50ff. 등 참조.

25) 平和共存의 반동外交가 好戰的 姿勢로 전환된 것은 國내의 정치・經濟적 상황의 變化와 관계가 깊다. Cf. A. D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Mao Er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p. 255.

intermediate zone)에 속하는 다른 先進國家와의 分裂을 感知하고, 後者는 帝國主義를 약화시키는데 利用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²⁶⁾.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와서 中共指導者들은 世界情勢가 다시 바뀌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제 모든 國家를 세개의 範疇로 나누면서, 第三世界的 低開發國家를 가장 중요한 革命勢力으로 보고, 中共이 여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美國과 蘇聯의 超強大國을 제외한 先進工業國家인 소위 第二世界的 國家들로부터 支持를 얻도록 努力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革命勢力과 帝國主義와의 기본적인 戰爭이 아직 존재하지만, 그러나 帝國主義의 새로운 定義는 美帝國主義와 蘇聯의 社會帝國主義를 포함하게 되었고, 잠재적인 同盟에 관한 다시 새로운 定義에는 兩大帝國主義 國家를 제외한 모든 國家와 人民이 포함된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中共指導者들의 이와 같은 世界觀의 변화는 國際情勢의 變化에 반드시 相應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中共外交政策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觀이 현실에 대한 評價보다는 未來에 대한 希望을 더욱 잘 나타내며, 그들의 外交政策의 실질적인 동기보다는 世界가 그들 政策의 動機라고 믿었으면하는 바를 보다 더 밝힌다는 것이다²⁷⁾. 사실상 世界觀은 특정한 政策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당면한 問題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具體的인 政策을 고찰해야 한다.

오늘날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觀은 다른나라의 指導者들의 그것과 다를뿐 아니라, 그들 自身의 過去의 見解와도 다른 것이 특색이다. 어떤 意味에서, 오늘날 中共指導者의 世界觀은 第三world에 대한 積極적인 關心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根本적으로 中蘇紛爭의 產物인 것이다. 아무튼 世界情勢를 보는 中共指導者들의 見解가 非正統的인 樣相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中期부터였다.

26) 소위 “中間地帶論”은 1950년대에 등장했지만 中間地帶를 둘로 나누어 第一中間地域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低開發國家, 第二中間地域에는 美國을 제외한 西歐 기타 地域의 資本主義 國家들이 속한다는 概念은 1964년 1月 人民日報 社説에서 비롯되었다. “All the World's Forces Opposing U.S. Imperialism, Unite!” in *Peking Review* (January 24, 1964), p.7; Barnett, *Uncertain Passage*, pp.269, 375에서 再引用 또한 Simmonds, *China's World*, pp.147-156. 참조.

27)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p.9.

1965년 당시 國防相이던 林彪는 毛澤東의 軍事思想에 철저히 입각하여 소위 “人民戰爭”에 관한 論文을 발표하였다²⁸⁾. 여기서 그는 權力의 獨斷을 위한 戰爭過程에서 中國共產主義者들의 “革命的 經驗”이 全世界的인 革命戰略을 발전시키는 基礎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戰略은 農村地域의 努力이 都市地域의 敵을 포위하여, 섭멸시키는 것이어야 된다고 主張했다. 林彪에 의하면, 단일 北美와 西歐가 世界의 都市라고 한다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世界의 農村地域을 형성한다. 또한 “現代의 世界革命은 農村地域에 의한 都市의 포위라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 人民의 革命的 戰爭”을 위한 “社會主義 國家들의 支持를 호소하고, 이를 地域에 있어서 革命은 반드시 中國共產主義者들의 執權過程에서 경험한 武裝戰爭이어야 한다고 力說했던 것이다²⁹⁾.

요컨대, 1960년대 중기부터 中共指導者들은 蘇聯을 종주국으로 하는 社會主義陣營과 점차로 결별하고, 그들 자신의 경험이 帝國主義에 대항하여 싸우는 低開發社會의 革命戰爭의 모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文化革命기간중, 中共指導者들은 美·蘇가 共謀하여 反中共 내지는 世界制霸의 核軍事同盟을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非難하면서, 社會主義 陣營에 있어서 中共의 參與를 最少化시켰던 것이다.

나. 九全大會이후

1969년 4월에 召集된 中國共產黨 九全大會는 文化革命을 형식상으로 決算한 大會였지만, 外交政策面에서도 注目할 變化를 나타냈다. 그 變化的 직접적인 原因은 1968년 8월 蘇聯의 체코슬로바키아 侵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侵攻이 결국 文化革命의 終熄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³⁰⁾. 다만 外交政

28) 原文은 Lin Piao, “Long Live the Victory of People's War,” *Peking Review* 36 (September 3, 1965), pp. 9-30.

29) 그러나 여기서 武裝戰爭은 기본적으로 防衛戰爭戰略인 것에 주의할 必要가 있다. 당시 中共指導者들은 越南戰爭의 擴戰을 두려워 하고 있었으며, 中共指導者 内部에서 戰略의in 論爭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f. Uri Ra'anan, “Peking's Foreign Policy 'Debate', 1965~1966,” in Tang Tsou, *China in Crisis*, Vol. II, pp. 23-71; Donald Zagoria, “The Strategic Debate in Peking,” *Ibid.*, pp. 237-268.

30) Cf. Joseph Y.S. Cheng, “China's Foreign Policy: Continuity and Change,” *Asia Quarterly: A Journal from Europe* (April, 1976), p. 299.

策面에서 이미 두가지의 팔목할 變化가 文化革命의 涡中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蘇聯과 美國을 동등한 水準의 國家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들은 第2의 中間地帶를 포함하여 새로운 聯合戰線의 可能性을 시사한 것이다. 당시 中共 首相이던 周恩來는 1968년 8월 23일 루마니아 建國日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蘇聯의 指導者들을 “社會 帝國主義者(social imperialists)” 또는 “社會主義 파시스트(social-fascists)”라고 불렀으며, 美蘇間의 野合대신 美蘇間의 矛循的 側面을 강조했던 것이다³¹⁾.

이와 같은 路線은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全12中擴大會議가 채택한 콤무니케에서 再確認되었다. 이에 의하면,

“相互 共謀와 戰爭을 계속하면서, 美帝國主義者와 蘇聯修正主義者は 世界를 再分割하려는 헛된 努力を 시도하고 있다。(中略) 그들의 赤裸裸한 侵略的 行爲는 帝國主義 陣營과 修正主義 陣營內의 内部的 矛盾을 심화시켰고, 그들 國家內의 被壓迫 大衆의 政治的 覚醒을 고취시켰고, 또 同時에 美帝國主義와 蘇聯修正主義에 대항하는 全世界의 프롤레타리아와 人民의 戰爭을 새로이 고취시켰다.³²⁾”

이러한 中共의 世界情勢觀 내지는 外交政策戰略은 九全大會에서 행한 林彪의 政治報告에서 公式的으로 그 外交政策의 틀속에 삽입되었다.

“오늘날 世界에는 네개의 주요한 矛盾이 있다. 한편 被壓迫國家와 다른 한편 帝國主義와 社會帝國主義사이의 矛盾；프롤레타리아와 資本主義 및 修正主義 國家の 브르죠아사이의 矛盾；帝國主義 國家와 社會帝國主義 國家, 또 帝國主義 國家 상호 간의 矛盾；그리고 한편으로 社會主義 國家와 다른 한편 帝國主義와 社會帝國主義 사이의 矛盾인 것이다.³³⁾”

林彪는 이와 같은 矛循의 상황속에서도 世界革命의 展望을 樂觀視하면서, 中共의 外交政策을 아래와 같이 要約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에 입각하여 社會主義 諸國과의 友好, 相互援助 및 協調를 증진시킨다；모든 被壓迫人民과 國家의 革命戰爭을 支持하고 支援한다；領

31) *Ibid.* 周의 연설문은 *Peking Review* (August 23, 1968), Supplement, pp. 3-4 참조.

32) *Ibid.*, p. 300에서 再引用. 콤무니케의 全文은 *Peking Review* (November 1, 1968), supplement를 볼 것.

33) Lin Piao, “Report to the Nin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eking Review*, special issue (April 18, 1969), p. 26.

土의 保存과 主權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相互內政不干涉, 平等互惠, 平和共存의 5個原則을 기초로 하여 相異한 社會體制를 갖는 國家와도 平和共存을 위하여 努力 한다; 侵略과 戰爭의 帝國主義 政策에 反對한다. 우리의 프롤레타리아 外交政策은 便宜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지속하여온 政策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過去에 행하여 온 것이며, 未來에도 우리는 同一한 行동을 지속할 것이다.³⁴⁾"

九全大會에서의 林彪의 報告에는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몇가지 特異點을 지적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첫째, 蘇聯은 美國과 同等하게 敵으로 看做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社會帝國主義 國家로서, 蘇聯은 矛循의 네가지 範疇에 있어서 美國과 同等한 位置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社會帝國主義國家間에는 矛循이 發見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속하는 國家는 蘇聯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東歐의 共產國家들은 분명히 다른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다. 세째, 矛循의 범주에 있어서 被壓迫國家 一즉 第三世界의 國家一와 美・蘇와의 矛循을 第一의 범주로 分類함으로써, 第三世界에 대한 中國의 關心을 노골적으로 表示하였다는 것등이다. 네째, 美國과 蘇聯사이의 矛循을 지적함으로써, 이들 두 超大國과 中國사이의 三角關係의 미묘한 함축을 시사했던 것이다.

이것과 연관하여 여기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聯合戰線개념이 확대되어 蘇聯을 共同의 敵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平和共存의 五原則이 새삼 강조되고, 相異한 社會體制를 갖는 國家와의 關係改善을 시사함으로써 文化革命기간 중 강조되던 “人民”的 개념이 이제는 “國家와 人民”的 광범한 聯合戰線으로 대치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中共은 林彪事件이라는 國內政治上의 큰 變化를 겪었기 때문에, 外交政策面에 있어서도相當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林彪事件의 마무리作業이 있다고 할 수 있는 1973년 8월의 10全大會의 政府活動報告에서 周恩來는 國際野分에 있어서, 우리 黨과 政府는 九全大會가 決定한 外交政策을 견고하게 실천해 왔다"고 말했던 것이다³⁵⁾. 그러나 벌써 이때는 中共의 外交가 理念的 내지는 理論의 틀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變化를 겪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美國과의 關係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日本과는 이미 國交가 正常化되었다. 中共外

34) *Ibid.* p.28.

35) Chou En-lai, "Report to the Ten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eking Review* (September 7, 1973), p.19.

交의 계속성과 변화의 문제는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10全大會에 나타난 中共의 世界觀을 살펴보기로 한다.

周恩來는 現在의 國際情勢를 “天下大亂(great disorder)”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現在는 아직도 帝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時期이지만, 第三世界가 각성하기 시작했고, 帝國主義와 植民主義, 특히 兩超大國의 羣權主義와 힘의 政治에 대항하는 世界的인 戰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國家는 獨立을 원하고, 民族은 解放을 원하고, 人民은 革命을 원한다.”³⁶⁾ 이것이 오늘날 世界의 情況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注意해야 될 것은 “革命”에 앞서서 “獨立”과 “解放”이 우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事實이며, 이것은 상당히 豐美로운 현상인 것이다. 또한 周恩來는 超大國의 羣權主義가 第3世界에 의하여 反對될 뿐 아니라, 日本과 유럽에 의하여도 反對되고 있다고 主張한다.

周恩來에 의하면, 帝國主義의 근본적인 様相은 大國들사이의 競爭, 특히 兩超大國사이의 競爭이라는 것이며, 이들은 공공연하게 世界霸權을 다퉁다는 것이다. 周恩來는 이제 美國과 蘇聯의 共謀보다는 이들사이의 다툼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革命的 國家”(中國)와 “帝國主義 國家”(美國)와의 菲廉적인妥協의 菲廉성을 논의하고, 美國의 영향력의 감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蘇聯이 이제 中共에 대한 최대의 威脅의 存在임을 시사한 것이다.

요컨대, 10全大會는 世界情勢를 天下大亂으로 特징지우고, 새로운 世界大戰의 可能性 속에서 革命이 또한 世界情勢의主流임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悲觀論은 1975년 1월에 개최된 第4期 全國人民代表會에서 발표된 周恩來의 政府工作報告에서도 再確認되었으나, 世界大戰의 可能性이 그렇게 절박한 것으로 展望하지는 않았다³⁷⁾.

다. 毛澤東의 “三字經”

九全大會에서 十全大會로 이어지는 中共外交政策의 變化는 1974년 4월 中共副首相 鄧小平의 유엔 演說에 잘 반영된다. 鄧小平은 여기서 世界三分論

36) *Ibid.*, p. 22.

37) “周首相の 政府活動報告 内容,” *毎日新聞*(東京), 1975年 1月 21日 참조. 또한 報告의 全文은 *Peking Review* (January 24, 1975), pp. 21-23. 을 볼 것.

을 展開하였는데 이에 대한 考察에 앞서서 毛澤東의 “三字經”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三字經”은 毛澤東의 世界情勢評價를 내용으로 하는 詩인데, 당시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觀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三字經”은 1974년경 毛澤東의 著作으로 추측되며, 일종의 機密文件으로서 中共當局에 의하여 公式的으로는 發表되지 않았지만, 1975년 中華月報(香港)에 參考資料로서 世上에 알려졌다³⁸⁾.

“三字經”은 “虎調頭, 襄獅悲, 態舞爪, 騎牛背, 月欺日, 塔揭光, 惠在婉, 櫳見幌.”의 24字로 구성된 歌詞이다³⁹⁾. 北京大學 政治教研組의 註釋에 따라서, 그 内容을 풀이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虎調頭에서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인 美帝國主義를 지칭한다. 美國은 兇惡한 面도 있지만 軟弱한 面도 갖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美國은 100萬이 넘는 軍隊를 世界各地에 派兵하였고, 200이 넘는 基地를 세웠다. 韓國에서 “侵略戰爭”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을 도왔고, 中東에서 危機를 造成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美國도 이제는 國內外의 反對勢力에 부딪히어, 海外

38) “毛澤東的‘三字經’” 中華月報 No. 719(1975年 8月), pp. 25-26. “三字經”에는 北京大學의 政治教研組의 註釋이 있다. 이것의 英文번역은 “Mao Tse-Tung's 'Trimetrical Classic' [1974?]", *Chinese Law and Government*, Vol. IX, No.1-2 (Spring-Summer, 1976), pp. 7-11. 다만 이것이 中共當局의 公式的 發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眞偽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으나, 상당한 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 韓國에서는 별로 소개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本文에서 비교적 상세히 그 内容을 읊기기로 한 것이다.

39) 의역하면,

“호랑이는 머리를 돌리고,
낡은 獅子는 슬프네.
곰은 발톱으로 춤추며,
소 잔등이를 타네.
달은 해를 괴롭히고,
탑은 빛을 발하는데,
재난은 닥쳤으나,
平和(올리브)가 손짓하네.”

*Chinese Law and Government*에는 Brown 大學의 David Lattimore 교수가 英譯한 것을 싣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註 ⑧ 參照).

“The tiger averts its head,
The tattered lion grieves.
The bear flaunts its claws,
Riding the back of the cow.
The moon torments the sun.
The pagoda gives forth light.
Disaster comes to birth;
The olive is seen waving.”

(특히 越南)에서 撤軍하게 되었고, 中東에서 平和를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가 머리를 들린 것”은 完全히 山속으로 간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맹렬한 攻擊을 위하여 三步 후퇴일 수도 있기 때문에, 美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狀況의 變化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둘째, 襄獅悲의 사자는 英國을 가리킨다. 그것은 過去에 침승의 王이었고 호랑이도 두려워 하고, 中國도 害를 본 나라이 것이다. 그런데 北京大 政治 教研組의 註에 따르면, 襄獅悲는 단순히 英國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歐洲共同體의 國家들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들 國家들은 과거에 植民地에 크게 依存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모두 獨立하고 말았으니, 딱한 일이 아닐수 없다는 것이다.

세째, 態舞爪의 곰은 蘇聯을 의미한다. 시베리아의 흑곰은 長白山을 넘어 서 中國內陸으로 침입하려고 한다. 곰의 발톱은 날카롭고, 힘이 세나, 미련한 것이다. 이 句節의 教訓은 곰의 침략을 방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 巨大한 國土와 人口, 科學發達, 뛰어난 裝備의 諸側面을 분석하여야 된다. 다만 戰略의으로 곰에 대처하면 勝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째, 騎牛背는 印度를 지칭한다. 印度에서는 소를 神聖視하기 때문에 그 비유는 지극히 合當하다는 것이다. 소는 사람이 타거나, 車를 끌지 않으면 별로 쓸모가 없다. 또 主인이 꿀을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野心이 크더라도 所用이 없다. 毛澤東의 교훈은 蘇聯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기는 하나, 印度에 대해서 지나치게 注意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月欺日에서 달은 中東의 國家들을 가르킨다. 아랍인들은 달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해는 石油波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나라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西半球의 發達國家와 日本등이 포함된다. 과거에 中東은 帝國主義와 植民主義勢力에 의하여 착취를 당하였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 反對라는 뜻이다.

여섯째, 塔揭光의 탑은 印度支那반도의 佛教國을 의미한다. 탑이 빛을 발하면 吉兆라는迷信이 있는데, 塔揭光의 의미는 印支半島國家들의 戰爭을 비유하고, 그 樂觀的인 展望을 말한 것이다.

일곱째, 患在婉의 재난(患)은 福患과 戰患을 뜻하며, 世界大戰의 危機가 아직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다. 帝國主義, 修正主義, 反革命勢力이 毒牙와 발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戰爭은 향시 폭발할 수 있다. “十月懷胎, 一

朝分娩”(열 달동안 懷妊하다가, 하루 아침에 分娩한다)는 말은 思想的인 準備를 하여야 함을 뜻한다. 戰爭의 可能性은 偶然한 것이 아니며, 오랫동안 孕胎되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다고 풀이하고 있다.

여덟째, 檻見幌의 檻(울리브)은 平和를 의미한다. 毛澤東은 이 句節에서 戰爭을 원하는 者도 있지만, 平和를 원하는 者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平和는 항상 인류의 希望이었다. 戰爭이 革命을 이끌든지, 또는 革命이 戰爭을 종식시키든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다만 平和는 希望이지만, 世界各國의 人民들은 世界平和를 쟁취하기 위해서 奋鬥・努力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毛澤東의 “三字經”的 註解를 살펴 보았다. 그 內容으로 보아, 이것은 美軍이 越南에서 撤收한 후에 그러나 캄보디아가 共產主義者들의 手中에 합락되기 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三字經”에서 荷 미로운 것은 蘇聯을 제일 경계해야 할 敵으로 表現했다는 것이다. 美・蘇의 두 超大國의 帝國主義와 社會帝國主義를 公式的으로 非難하면 당시에 美國에 대한 二元的 態度를 表明했다는 것이다.

라. 世界三分論

위에서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中國共產黨 九全大會에서 十全大會로 이어지는 外交政策의 變化와 繼續性은 1974년 4월 유엔 總會에서 행한 鄧小平의 演說에서 分明해진다. 鄧小平의 演說은 世界에 대한 中共指導者들의 接近을 설명하고 正當化하기 위하여 그들의 見解를 가장 명료하게 밝힌 演說者들이 과거에 展開했던 世界觀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그 특징인 것이다.

“社會帝國主義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2次大戰이후 존속했던 社會主義陣營은 이제 더 이상 存在하지 아니한다. 資本主義의 不均衡된 發達로 인하여, 西方의 帝國主義陣營도 봉괴의 과정을 걷고 있다. 國際關係의 變化를 미루어 판단하건대, 오늘의 世界는 사실 서로 연관되고, 서로 矛盾된 세계의 部分, 혹은 세계의 世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美國과 蘇聯은 第一世界를 형성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地域의 發達과정의 國家들은 第三world를 형성하고, 이 둘사이의 發達된 國家는 第二world를 형성한다⁴⁰⁾.

社會主義陣營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中共은 어디에 속하는가? “中國은

40) 鄧小平 演說의 全文은 *Peking Review* (April 12, 1974), special supplement, pp. 1-5.

社會主義 國家이며, 同시에 發達과정의 國家이다. 中國은 第三世界에 속하고 있다”고 鄧小平은 말한다⁴¹⁾. 사실상 中共의 실질적인 外交政策은 中共이 第三world에 속하는 國家로서 超大國의 帝國主義와 植民主義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被壓迫民族을 지원한다는 假定아래 운영되었지만, 中共이 第三world의 一員이라는 것을 中共指導者가 公式的으로 밝힌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國際關係는 격변하고 있다.” 그리고 “歷史는 戰爭속에서 발전하고, 世界는 搶亂속에서 전진한다.” 오늘날의 世界는 鄧小平에 의하면 “搶亂과 大亂” 속에 있으며, 모든 기본적인 矛盾이 첨에 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世界의 모든 政治的 劋力은 격심한 分裂과 再聯合의 과정속에 있다.” 그리하여, 植民主義, 帝國主義 및 翡權主義에 기초를 둔 舊秩序가 깨지는 한편, 新興勢力의 각성과 성장이 오늘의 國際情勢의 現實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諸國은 國際問題에 있어서 보다 큰 役割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第一世界와 第二world는 어찌한가? “兩超大國은 오늘날 최대의 國際의 掣取者이며 (中略) 모든 國家의 獨立과 安全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鄧小平은 美·蘇兩大國을 非難하면서도, “社會主義의 符號를 펼치이는 超大國이 특히 악하다. 그것은 ‘同盟’인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기 위하여 軍事力を 과연하였고, 파키스탄을 分割하기 위하여 戰爭을 충동했다”고 강조함으로서 蘇聯을 공격했던 것이다. 또한 鄧小平은 兩大國사이에는 協調보다 衝突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兩超大國은 世界霸權을 위하여 투쟁하기 때문에, 그들사이의 矛盾은 和解할 수 없는 것이다. (中略) 그들의妥協과 野合은 단지 부분적이고, 잠정적이고, 상대적이며, 그들의 다툼은 전면적이고, 영구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鄧小平은 새로운 世界戰爭의 위협이 상존하지만, 오늘날 世界의 主要趨勢는 革命이라고 강조했다.

第二world에 속하는 국가들의 狀況은 복잡하다. 그들 가운데 어떤 國家는 아직도 第三world의 國家와 ‘식민주의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들 國家는 정도의 差는 있을 망정 超大國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으며, 超大國의 통제로 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帝國主義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第二world가 第三world의 공통의 利害關係를 갖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41) Ibid.

그런데 鄧小平의 演說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第三世界的 등장과 超大國에 대항하는 第三世界國家의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第三世界의 國家들은 政治的 自主는 획득하였으나, 아직 그들 모두가 植民主義의 殘在勢力を 청산하고, 民族經濟를 발전시키고, 國家의 自主를 공고화하는 歷史的任務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政治的 自主와 經濟的 自主를 공고히하고, 방위하는 투쟁중에 있으며, 그들 모두가 “自力更生”을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그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超大國과의 기본적인 關係를 변형시키는데 努力を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諸國과 人民의 戰爭이 帝國主義의 본질적인 脆弱性을 露呈시켰다”고 鄧小平은 宣言한다. 超大國의 支配에 대한 이들 國家의 戰爭은 國際關係의 發展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늘 날의 國際狀況은 發達과정의 國家와 世界人民에게 가장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 그리하여 第三world의 國家들은 “世界史의 바퀴를 추진하는 革命的原動力を 형성하고 植民主義, 帝國主義, 특히 超大國과 투쟁하는 主動勢力이다”고 主張한다⁴²⁾.

第三世界的 중요성을 강조하고 中共이 第三world에 속하는 社會主義 國家라는 鄧小平의 主張은 中國共產主義者들이 1949년 執權당시에 가졌던 世界觀과는 正反對되는 것이다. 당시 蘇聯과 同盟關係를 맺고 있던 中共은 中立主義의in 發達과정의 모든 國家를 帝國主義의 “走狗”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中共은 第三world와의 단순한 同盟關係를 넘어서, 第三world이 일원으로서 超大國(특히 蘇聯)과의 戰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⁴³⁾

3. 世界觀과 國際的 役割：可能性

鄧小平의 演說은 오늘날 中共外交政策의 기본적인 方向을 제시한 것이며, 外交에 대한 中共指導者들의 思考方式의 一端을 表明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共은 第三world의 一員으로 自處하면서, 第三world에서 指導力を 행사하려고 努力해 왔고, 따라서 發達過程의 國家와의 關係를 擴大하려고 努力해 왔

42) *Ibid*

43)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p.14. 또한 Cf. Michael B. Yahuda, *China's Role in World Affairs* (London: Croom Helm, 1978), pp.235-268, esp. 258-260.

다. 그러나 다른 한편 中共은 第二世界의 國家와도 關係를 改善強化하여 왔다. 예컨대 鄧小平은 1975년 5월에 佛蘭西를 방문하고, 平和 5原則에 입각한 兩國사이의 關係強化를 力說하고, 超大國에 의한 國際問題의 獨占을 反對하자고 強調했던 것이다⁴⁴⁾. 이것은 어떤 意義에서 超大國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와도 聯合戰線을 형성하겠다는 제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超大國의 하나인 美國과의 關係도 正常化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中共外交政策의 變化는 오늘날 中共外交의 基本方向이 소위 “國家對國家”的 關係를 강조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中共이 非公式的인 “人民外交”를 輕視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革命輸出의 不可能성을 최근에 와서는 公式的으로 천명하면서도⁴⁵⁾ 많은 地域에서 革命的 活動을 지원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확실히 中共外交는 바네트 教授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二元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⁴⁶⁾.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觀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들이 國際社會에서 갖는 役割에 대한 概念도 변화해 왔다. 야후다(Michael B. Yahuda) 教授는 1960년대 이후 中共이 가졌던 役割을 크게 넷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가 있는데,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觀과 관련시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⁴⁷⁾. 中共指導者들이 갖는 中國의 國際的 役割에 대한 相異한 概念은 말할 것도 없이 社會主義의 本質이 무엇이며, 社會主義를 成就하고 공고화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方案에 관한 相異한 見解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이와같은 相異한 役割概念은 國際情勢의 主要性格, 그 基底에 작용하는 多樣한 勢力 및 中國이 그것에 어떻게 對應하느냐 하는 것을 分析하는데 있어서도 相異한 結論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⁴⁸⁾.

가. 소비에트와의 連繫

첫째의 可能한 中國의 役割은 소위 “소비에트 陣營”과의 連繫를 강조하는

44) “Teng Hsiao-p'ing's Speech at the Elysée Palace,” *Chinese Law and Government*, Vol. IX, No. 1-2 (Spring-Summer, 1976), pp. 180-182.

45) 이것은 1977년 8월의 中國共產黨 11全大會에서 행한 華國鋒의 “政治報告”에서 지적되었다. 每日新聞, 1977年 8月 23日, 4面 참조.

46)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pp. 14-19.

47) Yahuda, “Chinese Conceptions of Their Role in the World,” pp. 76-94.

48) *Ibid.*, p. 76.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1960년 이후 中蘇간의 새로운 同盟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中共의 指導者는 없다. 그 理由는 蘇聯과의 새로운 同盟은 政治的 自殺行爲로서 中共의 自主獨立를 制限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이슈가 대두된 것은 美國의 威脅下에서 蘇聯의 援助를 中國이 必要로 할 때, 必要이상으로 蘇聯을 敵對視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立場때문이었다. 말하자면 安保가 蘇聯의 비호를 받게 되면, 中國은 國內의 經濟發展에 主力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은 劉少奇와 연관시킬 수 있으며, 大躍進의 失敗직후인 1960~1962년 사이와 越南戰爭으로 인하여 美國과의 對立이 격화되던 1966년 초에 그 이유가 대두되었던 것이다⁴⁹⁾.

그런데 그것이 主張되던 時期로 보아서 蘇聯과의 새로운 連繫는 中共의 戰略的 脆弱性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나라를 中共指導者들이 第一의 敵으로 보느냐 하는 問題와 관련된다. 다만 蘇聯과의 새로운 同盟이 모색된다고 하여도, 1950년대의 兩國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形태의 것으로 發展될 것이 分明하지만, 그 展望은 현재 거의 없는 것이다.

나. “社會主義 堡壘”로서의 中國

美帝國主義와 蘇聯修正主義의 “反中國・反社會主義 同盟”에 대항하는 社會主義의 堡壘로서의 役割은 둘째의 可能性인 것이다. 이것의 代表의 主唱者는 林彪였다⁵⁰⁾. 그에 의하면, 世界革命의 震央이 이제는 中國으로 이전되고, 이 새로운 時期에 있어서는 毛澤東思想이 “唯一 正確한 理論的 指針”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毛澤東思想은 帝國主義가 完全崩壞로 향하고 社會主義가 汎世界的 勝利로 전진할 때의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의 堡壘로서 中國의 役割을 강조한 林彪는 中國의 기본적인

49) *Ibid.*, pp. 77-78. 1960~1962년에는 소위 “三和一少”的 劉少奇노선이 主唱되었고 하는데, 그것은 “帝國主義, 反動, 現代修正主義와의 和解와 海外의 革命鬪爭에 대한 支援減少”를 의미했다. 애후다 教授는 “三和一少”가 누구에 의하여 주창되었는지 分明치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劉少奇의 主張인 것이다. 예컨대 昆明軍區政治部宣傳部編印, 《形勢教育參考材料》, 第43號(1973年 4月 4日), p. 1을 볼것. “三和一少”는 분명히 蘇聯과의 새로운 關係를 모색한 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50) 林彪의 이와 같은 主張은 “人民戰爭勝利萬歲”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 본격적인 主張은 1967년 11월 6일의 人民日報, 解放軍報, 紅旗의 共同社說인 “10月革命 50周年을 紀念하자”는 글에서였다. Lin Pia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ctober Revolution”, *Peking Review* (November 10, 1967) 참조할 것.

課業을 다음의 네가지로 지적한다.

1. 中國을 世界革命의 강력한基地로 건설할 것.
2. 모든 國家의 프로레타리아와 人民의 革命鬪爭을 적극 支持할 것.
3. 美國에 의하여 주도되는 帝國主義와 蘇聯에 의하여 주도되는 修正主義와의 鬪爭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世界人民과 協力할 것.
4. 毛澤東思想을 더욱 學習하고, 全世界에 전파할 것⁵¹⁾.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接近은 革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中國의 孤立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戰略적으로 이 立場은 人民戰爭理論과 상통하며, 經濟的側面에서 그것은 “自力更生”的 政策을 의미한다.

社會主義의 堡壘로서 中國의 役割이 主張된 것은 물론 文化革命 당시의 狀況을 반영한 것이다. 文化革命의 격동이 지난 후에 이러한 立場의 硬直性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蘇聯의 체코슬로바키아 侵攻이후 蘇聯의 軍事的威脅은 다른 中共指導者로 하여금 林彪의 立場에 대한 壓力を加重시켰던 것이다. 美國과의 和解를 모색하게 된 것이 文化革命의 끝무렵이고, 林彪는 여기에 反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⁵²⁾.

다. 第三世界속의 中國

세째의 可能性은 植民主義, 新植民主義, 帝國主義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第三世界의 宗主國으로서, 또한 超大國 帝國主義로 부터 自主獨立을 수호하는 中小國(small and medium powers)의 一員으로서 中國의 役割이다. 이 러한 見解의 核心은 여전히 革命의 視角인 것이다. 이에 의하면, 世界의 基本的矛盾은 超大國에 의하여 主導되는 帝國主義와 이것에 의하여 억압되고 착취되는 第三世界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鄧小平의 世界三分論에서도 言及되었지만, 위의 接近에는 적어도 세가지 特色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蘇聯을 帝國主義로 파악하는 것이다. 蘇聯은 이제 길을 잘못 택한 社會主義 國家가 아니라 美國보다 더욱 악한 法西스트이며 帝國主義者라는 것이다. 둘째, 中國은 第三world의 一員이며 동시에 中進國(medium powers)이라는 것이다. 세째, 中國은 독특한 社會・經濟的發展 모델의 진정한 社會主義 國家라는 것이다.

51) Yahuda, "Chinese Conceptions of Their Role in the World", p.80.

52) Ibid., p.81.

야후다 教授에 의하면, 여기에는 두가지의 變型이 있다. 하나는 1963~1965년에 주장되었고, 다른 하나는 文化革命후에 展開되었다는 것이다. 첫째의 것은 보다 革命적이고 階級에 기초를 둔 主張이며, 兩大陣營사이의 “第一中間地帶”, 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革命的이고 反植民主義의 運動을 겨냥한 것이었다. 당시 中共의 指導者들은 世界의 모든 기본적 矛盾이 이들 地域에 집중되었다고 主張했다⁵³⁾. 두번째의 變型은 階級보다는 國家水準의 相互作用을 강조하며, 소위 “第2中間地帶”를 겨냥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變型은 물론 상호 排他的이 아니며, 그 強調點이 다를 뿐으로 생각된다.

라. 五強의 一員으로서 中國

위에서 지적된 役割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中國이 强大國의 一員으로서 어떤 役割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보다 現實政治 지향적(real politik oriented)이며, 이러한 役割을 公言한 中共指導者는 없다. 그러나 中共이 유엔에 加入하고,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 된 이후에 어느 意味에서는 强大國의 條件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있다. 더구나 그러한 役割의 可能性에 관하여는 中共當局의 公式的 見解가 表明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시사된 바는 있기 때문에 强大國으로서의 中共의 役割概念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⁵⁴⁾.

그런데 이 役割概念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하며, 그것은 마르크스主義의 思想의 결과라기 보다는 힘의 政治 혹은 力量均衡의 政治와 關係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意味를 좀 더 詳述하면 아래와 같다⁵⁵⁾.

첫째로, 超大國(super power)의 개념은 社會·經濟的 條件에 근거한 고전적인 마르크스主義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行動的인 側面에서 規定된다. 말하자면, 大國의 개념은 行動을 유발케 하는 國內 혹은 國際的인 構造보다는 行爲나 活動自體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五代 力量圈의 상호관계로서 國際情勢를 기술하는 것은 力量均衡

53) *Ibid.*, p. 83.

54) 예컨대 郭沫若이 毛澤東의 見解라고 하면서, 世界情勢를 美國·蘇聯·歐洲共同體, 日本, 및 中國의 五大 力量의 立場에서 分析한 바가 있다고 한다. *Ibid.*, p. 86. 또한 John Gittings, “China's Foreign Policy: Continuity and Chang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2, No. 1 (1972), pp. 17-35 참조.

55) Yahuda, “Chinese Conceptions of Their Role in the World”, pp. 86-87,

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均衡이란 것은 西歐的인 의미의 政治的 군사적인 힘의 均衡이라기 보다는 中國의 利害와 직결된 地域에서 한 强大國에 의한 “霸權”的 設立을 反對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劢力均衡의 개념은 같다고 할 수 없으나, 中共이 强大國의 一員으로서 權力政治에 關與한다는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中共의 役割概念에 포함된다.

4. 問題와 展望

以上에서 우리는 中共의 世界觀과 世界戰略, 및 役割概念의 變化와 그 可能性 등을 概觀하였다. 中共이 1949년 社會主義의 성취를 목표로 한 國家로 등장한 이후, 그 世界情勢觀과 外交戰略은 큰 變化를 겪어왔지만, 대체로 그 立場은 소위 “一國社會主義”的 한 類型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아직도 中共의 指導者들은 그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世界的展開에 있어서 前衛에 위치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 後半부터 獨자적인 社會主義建設을 추구해 온 中共은 거의 모든 部面에 있어서 自力更生의 原則를 固守하여 왔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獨特한 政治體制를 發展시켰고, 獨特한 外交政策으로 世界에 임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蘇聯修正主義의 등장을 최초로 지적·비난했다는 것이며, 그들의 體制가 資本主義로 没落하지 않을 것이라는 自信을 견지하여 왔다. 따라서 中共指導者들의 대체적인 見解에 따르면, 社會主義 革命의 中心은 中國이라는 것이며, 强大國 帝國主義에 대항하는 社會主義의 堡壘도 물론 中國이라는 것이다.

가. 11全大會

그리하여 1977년 8월의 中共 11全大會에서 채택된 黨規約의 總綱에는 中共의 外交政策의 基本立場을 전명하면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主張했던 것이다.

“中國共產黨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堅持하고, 大國沙文ism(chauvinism)에 反對한다. 黨은 全世界의 진정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政黨·組織과 굳게 단결하며, 全世界의 프롤레타리아階級, 被抑壓人民, 被抑壓民族과 團結하며, 蘇聯과 美國의 兩超大國의 霸權主義에 反對하기 위하여, 帝國主義, 現代修正主義, 各國의 反動

56) Yahuda. *China's Role in World Affairs*, pp. 275ff.

派를 抑制하기 위하여,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制度를 地球上에서 一掃함으로써 全人類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과 분투할 것이다.”⁵⁷⁾

中共外交政策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는 어느 의미에서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또 이념적인 차원에서 中共이 汎世界的인 國際主義 運動의 部分이라는 것을 과시할 目的으로 主張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는 中共이 革命武裝鬪爭에 가담하고 있는 東南亞의 共產主義政黨을 宣傳의 面에서 또 物質的으로도 지원해 왔다는 사실이다. 사실 中共은 社會主義 革命이 레닌主義의 정확한 原則을 추종하는 共產黨에 의한 武裝鬪爭의 결과로서만 成취될 수 있다고 主張하여 왔고, 이 점에 있어서 中共外交에는 一貫性이 있어 왔다고 볼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中共外交戰略의 變化 특히 美國과의 관계改善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社會主義 國家라도 自己防衛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權利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예컨데 蘇聯의 威脅에 대항하기 위하여 美國의 힘을 利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⁸⁾.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立場에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표방하는 中國의 公式的인 態度를 說明할 뿐이다. 美國과의 關係改善이 毛澤東의 이론바 聯合戰線의 理論의 一環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世界政治를 權力政治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中共外交戰略 내지는 世界觀의 問題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第三世界와의 關係이다. 中共은 그自身이 第三世界의 一員으로 自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第三world의 國家는 中共을 그들 世界와는 區別되는 特異한 存在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많은 나라가 中共을 強大國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強大國으로서의 中共의 役割과 第三world의 一員으로서의 役割은 兩立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兩者를 어떻게 調和시키느냐 하는 問題는 中共指導者들이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課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57) “中國改正黨規約(上) 總綱全文”, 每日新聞, 1977年 8月 24日, 4面.

58) Yahuda, *China's Role in World Affairs*, p. 281.